

(가칭)경기안산1교 2028년 개교... 대부도 전학생 몰릴 듯

공립형 국제학교 수준 운영, 대부지역 교육환경 큰 변화 예상

오는 2028년 안산 대부도에 (가칭) 경기안산1교가 들어서면서 대부지역 초·중·고교에 전학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는 중·고등 과정 총 18학급, 36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대부지역 기존 학교들과 연계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년 상반기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교명선정위원회에는 대부도 주민도 포함될 예정이다.

(가칭)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립형 대안학교다. 전국의 대부분 국제학교가 사립 형태로 운영돼 학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과 달리, 대부도에 들어설 학교는 공립으로 추진돼 학비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는 대부도 지역 초·중·고교와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한다. 대부초·대남초·대동초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 입학 시, 대부중학교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 입학 시 일정 부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지역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더라도 연계 수업을 통해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 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학

교 신설에 그치지 않는다. 전학생 증가와 학부모, 교직원, 교육 관계자들의 유입으로 대부도의 인구 증가와 교육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대부도에 국제학교급 공립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큰 기회”라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메타쉐콰이어 길에서 바라본 대부도의 에펠탑

대부동 빙아머리 인근에 조성된 대부바다항기타마파크에는 두 곳의 메타쉐콰이어 길이 있다. 한 곳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대부바다항기타마파크를 가로지르는 길이고 또 하나는 대부파크골프장 옆의 메타쉐콰이어 전용 길이다. 대부도의 에펠탑으로 불리는 이 길은 전자의 길이다. 영흥도에서부터 시작된 송전탑 하나를 메타쉐콰이어길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마치 파리 에펠탑 처럼 보인다 하여 이곳의 송전탑은 대부도의 에펠탑으로 불리고 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공포 시민 편의는 높이고 규제는 합리화

상위법령 개정 반영 개발행위허가 기준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22일 일부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일부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를 현실화했다.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기준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보전녹지지역 및 지목이 임야인 생산녹지지역은 500㎡,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은 1,00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간소화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3,000㎡(지목이 임야인 경우 2,000㎡)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경관과 연계된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세차장 설치가 가능해졌고,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하면서 주차장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층 설치를 허용하는 등 도심 내 건축 여건도 개선됐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유소 건축이 일부 허용됐다. 과거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신축까지도 허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은 동일 안전에 대해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법정 기준인 2m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등 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시 안산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최대치(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한노인회 안산단원구지회 관계자 피소당해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선거관리위원장 A씨와 선관위 간사 B씨에게 23일 고소장이 접수됐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C씨는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바,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고소장에서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제7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 업무를 총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명백한 후보자 D씨를 정당한 자격 심사 없이 후보로 등록시키고 당선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의 공정한 회장 선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8호는 “신체 및

정신건강상 직무수행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치매, 보행 불가, 중고도난청, 중풍, 인지 기능장애 등)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다음주 신문은
한가위 연휴로 쉽니다.



안산시,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착공... 주차·여가 아우르는 공간

시, 24일 착수 기공식 개최

안산시는 24일 사동·사이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 공사에 본격 착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동 134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복합화시설은 전체 면적 1만5,856㎡ 규모로, 지하 1층(5,571㎡)에는 부설주차장 143면을 조성하고, 지상부에는 인조 잔디 축구장과 조깅트랙 등 주민 친화형 체육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207억 원의 사업비(국비 8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89억 원)가 투입될 예정이며, 약 18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복합 생활공간으



이민근 안산시장(오른쪽 여섯번째)이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 기공식에서 시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복합화시설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와 여

가 활동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

게 될 것”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

상과 함께 안산시 도시 경쟁력 제고

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市, 포럼 열고 시민의 건강한 식탁 위한 먹거리 정책 모색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산시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안산시 먹거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안산시 먹거리종합계획의 관계 부서와 외부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먹거리종합계획 추진 현황 공유 ▲안산시 먹거리위원회 위원 위촉 ▲강의 및 타 지자체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날 도시 먹거리 정책에 대한 강의와 충청남도 청양군, 경기도 시흥시의 먹거리 정책 추진 사항 등을 공유하며 안산시의 실질적인 먹거리 계획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

다.

안산시는 지난해 6월 안산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현재 8개의 부서가 총 27개의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정책 연계를 통해 ‘안산형 먹거리정책’을 내실 있게 다져간다는 계획이다.

이범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은 안산시 먹거리종합계획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범열 농업기술센터소장(맨 앞줄 왼쪽 네번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안산시 먹거리 포럼’을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2025년 추석맞이 기초연금 집중 홍보 실시

기초연금 신청 널리 알리고, 노후생활 안정위한 지원강화

국민연금공단 안산시지사(지사장 김미옥)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공단은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며, 수급희망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격오지 거주, 생업, 거동 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유료)로 ‘찾아보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과 신청을 지원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상록구, 방법 사각지대 해소 위한 ‘런닝순찰대’출범

자율방범대 상록연합대 시청 마라톤 동호회 ‘런닝순찰대’운영 협약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종홍)는 지난 23일 안산시 자율방범대 상록연합대(연합대장 유병권)가 안산시청 마라톤 동호회(회장 박진길)와 공원·하천 범죄예방을 위한 ‘런닝순찰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원·하천 등 방범 활동의 한계로 관리가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율방범대와 지역 동호회의 협력·연계를 바탕으로 자율적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런닝순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장 제공, 봉사시간 인정, 안전 교육 등

을 실시하고, 마라톤 동호회는 매월 2회 공원과 하천에서 동호회 활동을 겸한 순찰을 진행해 범죄 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질서 유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런닝순찰대’는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을 확장해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발적 협력에 기반한 모델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하던 런닝순찰대와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과 경찰이 지원하는 ‘민간 중심·공공 지원형’ 모델을 구축한다.

런닝순찰대는 오는 30일 발대식을 열고 추석 연휴 대비 합동 순찰을 통해 첫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병권 상록연합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방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

자살예방 사업 우수 지자체 생명존중문화 확산 앞장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안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살예방 사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의 모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청소·특수직군 등 맞춤형 심리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자살위험 개입 및 치료비 지원 등 예방-개입-회복을 잇는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한편, 매년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지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같은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이미경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왼쪽 두번째)이 자살예방시행계획 우수 지자체에 대한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을 기념하며 관계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상록구, 단원병원으로부터 안산 쌀 40포 기탁받아

상록구 노인복지관에 기탁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종홍)는 지난 23일 단원병원 임직원들이 안산 쌀 3kg 40포를 상록구노인복지관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탁받은 쌀은 지난 21일 열린 ‘2025 안산마라톤대회’에 참여한 단원병원 임직원 가운데 마라톤 참가자 40명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단원병원에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완주자에게 주어지는 쌀 3kg를 모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한 것이다.

권순구 단원병원 행정국장은 “마라톤 대회 참여로 개인의 건강도 챙기고, 받은 기념품을 헛되지 않게 기부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여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선물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이른 새벽부터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시고



박종홍 상록구청장(가운데)이 단원병원으로부터 안산 쌀 3kg 40포를 기탁받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웃 나눔까지 실천해주신 단원병원 임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후원해주신 쌀은 상록구노인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을 담아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선화 기자

다”고 말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 중심의 안전망 구축은 지역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유의

미한 시도”라며 “런닝순찰대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응원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시화방조제 유지관리통로 비상출입시설 자동문으로 교체

**박해철 의원, 개통식 개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로
주민 생명 안전 지킨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시 병)은 23일 박 의원 주관으로 시화방조제 유지관리통로 비상출입시설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은 시화방조제 방아머리 부근 대부도 시점부에서 열렸다.

개통식에는 박해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경기도의원, 박은경박은정황은화송바우나선현우 안산시의원, 나정숙 특별보좌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대부도 통장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작년 7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개방이 불가능했던 시화방조제 유지관리통로를 유사시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방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통식은 기존 수동 개폐 방식을 자동 시스템으로 일부 개선하고,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23일 박 의원 주관으로 시화방조제 유지관리통로 비상출입시설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박해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경기도의원, 박은경·박은정·황은화·송바우나·선현우 안산시의원, 나정숙 특별보좌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대부도 통장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성용 기자

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출입문 조작용 리모콘을 배포하는 것이 핵심이다. CCTV를 통한 긴급차량 확인 후 원격개폐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출입문 개폐시간을 10

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응급환자나 위험에 처한 시민들의 신속한 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개방할 수 없었던 유지관리통로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오늘 개통식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비상시 게이트가 자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여 안산 시민과 대부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MBK 홈플러스 ‘먹튀경영’ 안산시민 위해 끝까지 대응”

**김현 국회의원 “책임자 처벌
하고 실질 대책 내놔야” 강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은 25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의 ‘먹튀경영’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금융·사법 당국에 촉구했다.

안산지역 홈플러스 3곳 가운데 2곳이 이미 문을 닫은 가운데 나머지 1곳마저 폐점 위기에 놓이면서 김현 의원은 안산의 노동자와 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자본 MBK의 땅장사로 인해 홈플러스의 본업은 철저히 무너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 매출 상위의 우량 점포를 폐점시키고, 부지를 팔아 인수대금을 갚은 뒤 일부 점포를 직접 재개발해 개발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MBK의 땅장사로 인해 홈플러스의 본업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의 ‘먹튀경영’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금융·사법 당국에 촉구했다.

김태창 기자

김현 의원은 “지역사회는 홈플러스 매장 폐점으로 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소비자,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홈플러스를 청산 직전까지 몰아넣은 MBK와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에는 홈플러스 3곳이 있었으나 MBK는 지난 2020년 ‘안산점’을 아파트 시행사에 매각해 수천억대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어 5년여 만인 지난 1일 ‘선부점’

도 닫았다.

MBK는 안산에 마지막 남은 ‘고잔점’까지 연내 폐점하려 했으나 김현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보류한 상태다. MBK는 홈플러스 기업 회생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 최대 2000억 원을 홈플러스에 증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현 국회의원은 “MBK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 운용으로 이미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안다”

면서 “지역 매장 철수 방침을 전면 철회해야 하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기업의 철수는 안산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익이 최우선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장윤정 경기도의회 의원
‘2025 지방자치발전공헌대상’ 수상**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오른쪽)이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25 지방자치발전공헌대상’을 수상했다.

김태창 기자

**안산 생활 인프라 개선
교육환경 혁신 공로 인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25 지방자치발전공헌대상’을 수상했다.

‘2025 대한민국의정대·지방자치행정대상’은 국가와 사회,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단체장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자체 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정대·지방자치행정대상 평가조직위원회 등이 주관한다.

장윤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안산 지역 현안 해결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 성곡야구장 스코어보드 설치, ▲ 성포공원 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정비, ▲ 이동 매화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 성포광장 일대 교통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며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윤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방자치와 교육은 결국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고, 주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현 국회의원, YTN · TBS 정상화 방안 모색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 사진)은 22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를 열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공동주관해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 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미희

민주연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1, 2부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준현 언론노조 YTN지부장이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을 주제로 발제한 뒤 김남근 민주당 국회의원과 채영길 민연련 정책위원장, 김준현 변호사, 고한석 YTN기자,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이 토론했다. 김태창 기자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범정부의무교육 이수율 절반도 못 미쳐

**양문석 의원, “등록 즉시
교육 이수율 완료하도록”**

최근 체육계에서 성비위와 폭행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성폭력·폭행 예방 등 범정부의무교육 이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



이)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천선수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갑, 사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천선수

촌 국가대표 범정부의무교육 이수 대상자 1,609명 중 교육 이수자는 640명으로, 이수율은 39.78%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지도자는 301명 중 148명이 이수해 49.17%의 이수율을 보였으나, 국가대표 선수는 1,308명 중 492명만 이수해 37.61%에 그쳤다. 종목별로는 탁구가 7.41%로 가장 낮았

고, 우수는 100% 이수율을 기록했다.

반면, 이천선수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은 전체 442명 중 390명이 이수해 이수율 88.24%를 달성했으며, 종목별로도 절반 이상(51.35%)이 전원 이수율을 기록하는 등 진천선수촌 국가대표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한체육회 등록 전체 경기인 이수

율이 부재해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상태다.

양문석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범정부의무교육조차 제대로 관리·안내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관리 부실이자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며 “등록과 동시에 이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과태료 등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말부흥어촌계, 활성화 방안 논의... “매월 어장 청소부터 시작”

22일 주요인사 5명이
대부도저널 회의실에서
모여 간담회 갖고 논의

경인서부수산업협동조합 산하 말부흥어촌계(계장 신준선)가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에 나섰다.

말부흥어촌계는 안산시 대부남동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유리섬·베르아텔승마장·펜션단지 등이 어우러져 지역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신준선 계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5명은 22일 오후 대부도저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촌계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말부흥어촌계를 살릴 시간은 올해를 넘기면 어렵다”며 “내년 본격 추진을 위해 지금부터 자주 만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말부흥어촌계가 22일 대부도저널 회의실에서 '말부흥어촌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태창 기자

신 계장은 “현재 계원은 32명인데 일부는 외지에 있어 단합이 필요하다”며 “출자금 조성고 회의록 작성 등 체계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계원 입회와 기존 계원 간 화합을 통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첫걸음으로 매월 1회 이상 어장 청소를 실시하고, 계원들이 조를 편성해 어장을 관리·보호하는 데 솔선수범하기

로 결론을 내렸다.

말부흥어촌계는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정례 모임을 이어가며, 향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촌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산악회 고성 통일전망대와 김일성 별장을 다녀오다

9월25일 27명 회원 산행

대부도 산악회(회장 김근오)는 9월25일 27명의 회원이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통일전망대와 김일성 별장을 다녀왔다.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 출입신고소에서 등록을 하고 영상교육 받고 통일 전망대에 도착하였다. 전망타워에서 사진을 찍고 망원경으로 해금강과 우리 전방 초소 및 북한 땅 초소를 구경할 수 있었다.

통일전망대는 1984년에 처음 세워졌으며,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전망대로 통일전망타워와 6.25 전쟁체험전시관, 통일안보공원 등이 있다.

우리회원 중에 고성이 고향인 남태수회원이 가는 도중 지역을 자세히 설명 해주고 가이드 역할을 해주어 가는 길이 더욱 흥미로웠다

통일전망대 구경을 마치고 우리는 김일성 별장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경관에 도취되어 한껏 흥미로웠다

김일성 별장 주변의 해변가로 돌레길 데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점심은 생선구이와 대구탕으로 아주 맛있고 풍요로운 밥상에 대접받는 훌륭한 점심이었다

새로오신 회원들도 와보니 너무 재미있고, 분위기가 좋고 먹을 것도 풍족하여 매우 뜻깊은 여행이었다고 말하면서 매번 나오겠다고 하였다

차안에서 개인의 소개와 영업소개 및 홍보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얼굴을 알아가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대부도 산악회는 전국 유명한 관광지를 두루 다니며, 힐링하고 즐기면서 견문을 넓히고 삶의 지혜를 얻어 생활에 적용하면서 보람 있는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대부도 산악회 가입은 회장 김근오 회장(010-5339-2027)이나, 총무 황영애 (010-8223-5646)에게 연락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찬빈 시민기자 jeongcb@hanmail.net



대부도 산악회는 9월25일 27명의 회원이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통일전망대와 김일성 별장을 다녀왔다.

정찬빈 시민기자 jeongcb@hanmail.net

30주년 맞은 안산 대부포도축제... 뜨거운 호응



이민근 안산시장(가운데)이 대부포도축제 둘째 날인 20일 시민들과 신나는 댄스와 함께하는 포도밟기 체험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안산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된 ‘2025년 안산 대부포도

축제’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안산 대부포도축제는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대부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대부해솔길 걷기

대회, 안산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2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을 모았다.

특히 신나는 댄스와 함께하는 포도밟기 체험을 비롯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된

나무 놀이터, 승마체험장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새로 마련된 ‘대부포도 디지털 시식 코너’에서 관내 대학생들이 직접 대부포도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였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해풍을 맞고 자라 품미가 깊은 대부포도와 품질 좋고 신선한 안산 농특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함께 열린 제9회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는 대부해솔길 1-1코스과 바다향기 테마파크 습지산책로, 방수제도로, 메타세콰이어길 등 총 5.5km 구간을 걸으며 참가자들에게 자연 속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지난 21일 열린 ‘2025 안산마라톤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5,600여 명의 러너들이 시원한 가을바람 속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방아머리항 등을 비롯한 대부도 일원을 달렸다.

이민근 시장은 “사흘간 이어진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대부도의 매력과 대부포도의 가치를 느끼셨기를 바란다”며 “가을을 맞아 청년의 날 축제, 상록수문화제, 2025 슈퍼콘서트, 안산페스타 등 다채로운 가을 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가을하늘 정취 맞으며 “2025 안산 마라톤대회” 성황리에 개최 9월 21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5,000명 달리기 바닷길 질주

가을정취가 물씬 나는 9월의 일요일 아침, 파스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을 함께 맞으며 ‘2025 안산 마라톤대회’가 천혜의 보물섬 대부도의 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산시체육회와 경기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육상연맹이 공동주관한 ‘안산 마라톤대회’는 안산시민을 비롯한 각지의 달리기 5,000명이 참가해 5km, 10km,

하프코스 등 3개종별로 진행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민근 시장과 대회를 주최한 안산시체육회 이광중 회장,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김현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민근 시장은 “시화호의 푸른빛과 시원한 바람 아래 함께 달리는 참가

자 여러분을 환영한다. 대부도의 멋진 자연 경관을 만끽하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안산시체육회 이광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마라톤은 수많은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닮아있다. 여러분 모두의 지난날을 응원하며 안전에 유의하여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한편, 마라톤 대회는 하프코스에서 김용태(남), 조경희(여) 선수, 10km에서 조규민(남), 김주연(여) 선수, 5km에서 전아남(남), 황정미(여) 선수가 각각 1위에 올랐으며, 최고령 참가자와 최연소참가자에게 시상하는 특별상은 박순자(84세), 조수아(3세) 참가자가 선정돼 큰 박수를 받았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시, 대부도 마을어장에 대표 품종 바지락 종자 69톤 방류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일환

안산시는 오는 27일까지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도 대표 품종인 바지락 종자를 어촌계 마을어장에 방류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거친 바지락 종자 25톤을 방류한 바 있으며,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방류에서는 44톤을 추가 방류해 계획했던 69톤의 바지락 자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 전문가인 한국 수산자원공단(FIRA)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건강한 종자 선별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극심한 무더위와 고수온으로 인해 급감했던 갯벌 패류 자원을 이번 방류로 회복해 어장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산시 대표 패류 자원인 바지락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안산상의, 객수종 박사 초청 ‘최고경영자 강연회’

‘글로벌 경제 이슈 점검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주제로 강연

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가 23일 경제전문가 객수종 박사를 초청, 그레이트홀에서 ‘제166회 최고경영자 강연회’를 개최했다.

객 박사는 ‘글로벌 경제 이슈 점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와 그에 따른 세계 금융 시장 불안 ▲한국 경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환율·부동산·주식시장 등 실물경제 리스크 ▲지정학적 위험과 세계 패권 변화 등을 언급,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과 환율변동·수출환경의 연계성 등을 짚으며 향후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를 분석했다. 또 자원 경쟁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희토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객 박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경제전문가 객수종 박사가 23일 안산상공회의소 그레이트홀에서 최고경영자 대상 강연을 진행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채권·부동산 시장이 흔들릴수록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안산상의는 지난 1989년부터 기업 CEO를 대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이슈와 이에 따른 전략적 시

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강연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김철봉 안산상의 회장 직무대행 부회장은 “최근 트럼프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으로 상호관세 부과, 미국 내 투자 규모 확대 등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큰 타

격이 되고 있다”며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제시하고자 강연을 준비했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개소... 창업 도전 지원



이민근 안산시장(뒷줄 왼쪽 다섯번째)이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큐브 월피캠프’(상록구 광덕산3로 51)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5대)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업기업 입주공간(6실) ▲4층 다목적실 ▲5층 회의실 등 청년창업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는 입주기업들이 초기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멘토링, 투자연계, 마케팅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청년큐브를 중심으로 하는 창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산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월피캠프 개소를 통해 안산시는 명실상부 청년창업 클러스터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라며 “청년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함께 꿈을 향해 성장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전하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성안중학교, 다문화학생 송편만들기 전통문화 체험

활쏘기, 다도체험에 이어 송편 만들기에도 도전!

성안중학교(교장 양동영)는 9월 24일(수) 2교시에 다문화한국어특별학급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행사는 교내 다문화학생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한국의 생활·문화 적응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앞서 성안중학교는 4. 24.(목) 한국의 위인 탐구, 6. 13.(금) 활쏘기(국궁) 체험, 6. 17.(화) 독도 탐구, 9. 23.(화) 한

복 및 다도 체험을 한 바 있다. 다문화 담당 교사(유해경)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겁게 송편 만드는 걸 보니 취지에 맞게 운영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송편 만들기에도 참여한 3학년 KHVAN ARTYOM 학생은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직접 송편을 만들고 송편에 대해 알고 먹으니가 송편이 맛있어요. 그리고 제 송편 예쁘죠?”라며 직접 만든 밤 송편을 들어 보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장배 전국 우드볼대회, 화창한 날씨 속 성료



지난 20일 토요일 안산 호수공원 우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안산시장배 전국 우드볼대회가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전국 300여 명 선수 참가 안산시 생활체육 우드볼 위상 전국에 알린 대회

지난 20일 토요일 안산 호수공원 우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안산시장배 전국 우드볼대회가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생활체육 우드볼 선수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화성시 우드볼협회 전인근

회장, 수원시 우드볼협회 강 신 회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달려온 시, 군 회장들과 회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다양한 연령과 실력의 선수들이 참가해 여자 개인전, 남자 개인전, 여자 복식전, 남자 복식전 등 부문별로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안산시 우드볼은 질적·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재상 안산시우드볼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협회장님들과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대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민근 안산시장, 김효식 안산시청 공원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 이광중 체육회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회는 안산 우드볼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 최초 지정... 야간·주말 소아 진료 확대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도 오후 6시까지 운영

안산시는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최

초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달이 뜨면 더 빛나는 병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소

아 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입됐다.

응급실보다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진료를 통해 경증 소아 환자들이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부모들의 경

제적·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것이 정책 목표다.

관내 최초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고잔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단원구 광덕대로 174)이다. 소아 진료 경험이 풍부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인이 직접 진료를 담당한다.

오는 25일부터 고잔연세청소년과 의원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협력 약국인 참은누리약국도 함께 문을 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만, 추석 연휴인 10월 5~6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최초 지정은 안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갖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부곡동 새마을회, 추석 맞아 따뜻한 정 나눔



상록구 부곡동 새마을회는 지난 23일 관내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들을 위한 '꼬리곰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꼬리곰탕을 받은 주민들은 "추석 명절 밥상에 큰 보탬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어르신들도 "명절을 앞두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강준희 회장과 박정숙 부녀회장은 "강성옛 준비한 꼬리곰탕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 식탁에 따뜻함을 더해 드릴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

동을 통해 주민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은 부곡동장은 "추석을 맞아 정성 어린 나눔을 실천해 주신 새마을회에 감사드리며, 함께 어울려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곡동 새마을회는 이번 꼬리곰탕 나눔 외에도 ▲무료급식 봉사 ▲공유냉장고 반찬 나눔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군자새마을금고, 선부3동에 사랑의 쌀 나눔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자새마을금고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쌀 10kg 20포를 기탁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단원구 신길동에 위치한 군자새마을금고는 매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후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후원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기 군자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외될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후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승혁 선부3동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신 군자새마을금고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선부3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안산동 지사협, 소통과 사기 진작 위한 워크숍 개최



상록구 안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강원도 정선군을 방문해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위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안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주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식사 마련이 곤란한 독거노인 등 반찬나눔 사업과 장학금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내 인적 안전망이자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김홍락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사협 위원 간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위원들의 역량을 더 강화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 살피고 돌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하연 안산동장은 "안산동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사협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복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원곡동 주민자치회, 환경 개선 거리 캠페인 전개



단원구 원곡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2일, 2024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치사업인 '안전하고 깨끗한 원곡동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 사거리 인근에서 진행됐다.

특히 거리 캠페인을 통해 ▲무단투기 및 담배꽂초 투기 근절 ▲분리배출 실천과 재사용·재활용의 필요성 홍보 ▲종량제 봉투 사용 독려 등 주민 의식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박주현 주민자치회장은 "흔쾌히 자

치사업에 동참해 준 원곡동 통장협의회에도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주민자치회는 하드웨어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민 의식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석주 원곡동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모여 살기 좋은 원곡동을 만든다. 원곡동 행정복지센터도 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단원구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청남대(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2025년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지사협의 역할과 향후 활동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층 반찬 지원, 명절 꾸러미 나눔, 겨울철 김장 나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희자 민간위원장은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 더욱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협의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미라 중앙동장은 "위원님들의 헌신이 모여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해양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추석맞이 고구마 나눔



상록구 해양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22일 추석을 맞이해 관내 저소득 가구 및 한부모 가족 20가구에 직접 키운 고구마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은 나눔 활동을 위해 한양대 앞에 있는 텃밭에서 고구마를 직접 심고 가꿨으며, 이번에 수확한 정성 가득한 고구마를 5kg씩 상자에 담아 전달하며 풍성한 추석을 기원했다.

김영섭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어 수

확한 고구마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찾아가는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훈기 해양동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해양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해양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감사합니다

· THANK YOU ·

존경하는 친지, 지인 여러분께

저희 아들 성현 군의 결혼을 따뜻한 축복과 격려 속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가족들과 소규모로 검소하게 준비한 예식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더해져 더욱 뜻깊고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을 직접 모시지 못한 점에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지만, 보내주신 축하와 관심 덕분에 아들 성현 군의 새로운 출발을 기쁘게 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내주신 성원과 축복에 보답할 수 있도록 늘 정성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9월 28일
대부도저널 발행인 **윤성용** 올림



신랑 윤성현 | 신부 박재은
2025년 9월 27일

여러분의 애·경사를 알려드립니다

대부도저널은 대부도 주민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애·경사 및 행사 알림, 회원모집 등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좋은 사람, 좋은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칭찬소식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애·경사 및 행사 알림

알림 전화 : 032-880-9994 / 팩스 : 032-880-9961

대표메일 : dj250407@naver.com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메추리섬 매매

(주)리치개발 · 황금토목
차준환 M: 010.5558.6665

토지 매매

(1)매매가 8억, 방2, 본인 주거 및 펜션가능한 물건 구함
(2)대부동동(영전마을) 대송단지 앞 맹지. 답. 350평.
평당 35만원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대부도 방아머리의 명소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01-1

히든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아테네펜션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K3 바다낚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낚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낚시터

등대바다낚시터

이한중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낚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경인서부수협 대부지점

032.886.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1

대부 우체국

032.886.00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3

군자농협 대부지점

032.886.3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9-13

인천강화옹진
축산농협 대부지점

032.886.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1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웅진군, 추석맞이 영흥도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위문

정(情)을 담은 위문, 더 풍성한 한가위를 선물하다

웅진군은 24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영흥도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해피타운, 노인보금자리)을 차례로 방문하여 따뜻한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명절의 정을 전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에 있었던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방문은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경복 군수는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추석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



웅진군은 24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영흥도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해피타운, 노인보금자리)을 차례로 방문하여 따뜻한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군수는 위문품과 함께 어려운 주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담은 기부

물품(쌀)도 전달하였는데 기부 물품은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으로 마련된 것이다.

또한 웅진군은 추석 전까지 각 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웅진군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경복 군수를 비롯하여 각 국·실·과·소장 및 팀장 등이 참석해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후반기를 앞두고 군정의 비전과 목표를 재점검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지역 현안과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자리다. 특히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된 현안 사업과 주민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하며,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

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모든 부서가 빈틈없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을 갖고 군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실행력 있는 계획이 군민 신뢰로 이어지는 만큼, 전 부서가 함께 움직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계획안을 보완하고, 필요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성용 기자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 참석 문경복 웅진군수,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 건의



지난 22일, 충청북도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문경복 웅진군수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성용 기자

웅진군은 지난 22일, 충청북도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국가 농정시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가 3만㎡ 이하이고, 최소 군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해제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농촌의 현실과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 재산권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군은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를 5만㎡로 완화하고, 도로 기준도 면도·리도·농어촌도로까지 확대할 것과 3만㎡이하까지는 장관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문경복 군수는 “웅진군의 전체 농지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30%에 달하고, 농어촌도로에 접한 지역이 대부분이라 해제요건에 맞지 않아 과도한 규제에 주민들이 시달려 왔

2025년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큰 호응

웅진군이 지난 20일,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5년 섬마을밴드 음악축제’가 군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인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는 도서지역 음악동아리에 맞춤형 교류를 지원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북도면 2팀(바다소리 앙상블, 장봉도 풍물단), ▲자월면 3팀(풀등밴드, 대이작도 통

기타, 대이작도 색소폰), ▲영흥면 4팀(Y밴드, 붉은노리, 목섬밴드, FEY플랫동호회) 등 총 10팀이 참여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축제는 도서 지역 생활문화동아리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섬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명품 관광지 웅진군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항 기자 chang4900@naver.com

다”며, “이번 건의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의 과도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 저널 트레킹 투어 회원모집

‘대부도저널’에서 매월 1회씩 전국 유명 트레킹 장소를 투어하기 위한 ‘저널 트레킹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두번째 저널 트레킹

1.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7시 출발 (오전 6시 50분까지 집결)
2. 장소 : 속리산 단풍 (세조길 & 법주사 일대 등)
3.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여행자 보험위해 주민번호 필요)
4.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5. 참가비 : 1인당 5만원 (식비, 관광버스 왕복, 간식, 물, 여행자보험 포함)
(계좌 : 농협 352-2309-3205-43. 예금주 : 이선화 / 입금 후 연락바람)
6. 집결장소 및 시간 : 대부도저널 주차장 (단원구 상동로 97)

2025 ‘경기국제웹툰페어’ 1,850만 달러 수출계약추진 역대 최대 성과

전 세계 13개국 156개사
참가한 B2B 수출상담회
총 895건 미팅(상담)으로
약 1,850만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성과 달성

제7회 ‘경기국제웹툰페어’가 1,850만 달러의 수출계약추진과 3만5,290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경기국제웹툰페어’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88개사의 국내외 웹툰 기업이 참여했다. 올해는 이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1,610만 달러의 비즈니스 상담(계약), 3만 561명의 방문객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산업적 교류(B2B)와 대중적 즐거움(B2C)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 기업과 관람객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며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다운 위상을 한 번 더 입증했다.

국내 웹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B2B 비즈니스 상담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개최됐다. 상담회에는 국내 웹툰 기업을 비롯한 아시아·미주·유럽 등 주요 국가의 셀러와 바이어 총 156개사가 참가해 웹툰 지식재산권(IP) 거래와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 이틀간 총 895건의 1:1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으며, 약 1,850만 달러 규모의 상담(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제7회 ‘경기국제웹툰페어’가 1,850만 달러의 수출계약추진과 3만5,290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김태창 기자

B2C 전시회장 내 메인 무대에서 열린 콘퍼런스 프로그램도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기술과 웹툰 IP 확장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통해 웹툰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며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인사이트를 전했다.

B2C 전시회 또한 연일 성황을 이뤘다. 작가컴퍼니의 ‘중증외상센터 : 골든아워’ 한산이가 작가, 맥에이전시의 ‘사랑받는 언니가 사라진 세계’ 밤마녀 작가 사인회 등은 행사 기간 내

내 긴 줄이 이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열혈강호’, ‘이번 생은 우주대스타’ 등이 참여한 ‘콜라보 카페’에서는 인기 웹툰 IP 굿즈를 활용한 특별 메뉴가 큰 인기를 끌며, 웹툰 팬덤 문화의 무한한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

툰잉, 브레인 벤처스 등 신기술 업체들은 AI 기반 번역 및 현지화, 자동화 솔루션, 보조 제작 툴을 선보이며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실제 창작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이 소개되

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고교 전공생과 팬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며, 웹툰 창작에 대한 열정과 대중적 인기를 실감케 했다. 기존 기업 중심 행사들과는 달리, 학생과 작가 지망생들도 자유롭게 부스를 마련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서 신인 작가들의 첫발을 내딛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진경 의장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협치와 소통으로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 사진)은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광역지방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모범이 될 성과를 보여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

자체장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이끌며 소통과 협치로 경기도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여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협치와 소통으로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철 만난 쭈꾸미 잡이...구봉도 앞바다에 몰려든 낚시배 30여척

구봉도 앞바다에 제철을 맞은 쭈꾸미를 잡기 위해 낚시배 30여 척이 몰려들었다. 대부해솔길 1코스 유명한 할매·할아배 앞에서 바라본 풍경으로, 주말이면 수십 척의 낚시배가 찾는 인기 포인트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민고 찾은 체험마을 알고 보니 불법영업... 道, 농촌체험마을 불법행위 적발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정부와 관할 시군으로부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이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벌이고 무단으로 하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해 4개 업소에서 미신고 숙박업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유류 공공자산을 활용해 도민에게 숙박시설, 휴양공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를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2

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 B 체험마을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예약 방식으로 모객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 숙박업 영업을 했다. 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 및 음식을 조리·판매하

고,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했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해 물놀이장과 송어잡이체험장을 조성하고 슬라이드(미끄럼틀) 등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전원주택, 토지, 팬션, 매매 및 분양



YouTube

포도나무부동산TV

032.880.047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12 (구봉도 입구/ 배터지는 집 옆)

안산사이언스밸리 제2의 송도 · 판교로… 경제자유구역 확정

경제적 유발효과 2조
2,229억 원, 취업(고용)
유발효과는 1만1,848명

안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역세권을 함께 품은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받으며,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로 급부상했다.

이번 신규 지정은 이민근 시장이 민선 8기 취임 이후 약 3년간 시민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온 힘을 쏟은 결과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제2의 송도, 판교 같은 글로벌 첨단산업 지구로 개발하는 길을 열게 됐다.

안산시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1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안건을 최종심사·의결 받았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후보지 선정 이후 약 3년 만의 결실이다.

이민근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중심의 전통 제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경제특구다. 지정 시 입지 혜택, 세금 감면, 인허가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부여받아 유망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약 2조 2,22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1,848명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조감도.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첨단로봇·제조 중심, 신산업 지정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66번지 일원 1.66㎢(약 50만 평) 규모의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가 첨단로봇과 제조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 지역은 거점대학인 한양대 ERICA를 중심으로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강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수도권 대표 산학연 클러스터다.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의 뛰어난 연구·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 첨단산업 R&D 중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한다. 우수한 서울 접

근성(급행 기준 신안산선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 25분대)과 함께 쾌적한 정주 환경(그랑시티 자이, 스마트시티 89블록 계획 등)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인접한 국내 최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디지털전환(DX)·인공지능전환(AI) 산업과의 연계로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최고의 입지와 잠재력을 주목받고 있다.

개발 부지는 사유지와 한양대 ERICA 소유지로 이루어져 토지수용 절차 없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사업 시행자는 안산시와 한양대학교(한양학원)로 확정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3년간 안산시는 개발계획 수립, 국내의 투자유치, 기업 협회 및 기관 네트워크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에 전력을 다해 왔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로봇시티 안산’과 ‘기업친화도시 안산’을 향한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행정의 결실”이라며,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로봇 등 미래산업 중심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제학교 유치와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안산시는 AI와 첨단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모든 성과가 안산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개발 타당성 용역 및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해 미래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초석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윤성용 기자

올해 신규 공무원 임용 전 교육 공직 첫걸음 지원

72명 신규임용 대상으로

안산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예정 공무원 72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공무원 임용 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직자들의 기본 소양을 확립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조기에 습득해 공직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1일 차 교육에서는 친밀도를 높이는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공직 가치 내재화 ▲유형별 소통 스킬 ▲민원 응대 역량 강화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직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튿날에는 신규자 간 협업을 위한 팀빌딩 교육과 ▲커피와 함께 하는 안산 이야기 특강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특강 등 전문 강사 및 선배 공직자들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신규 공무원은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새로운 주역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신규 공무원들이 빠르게 시정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맨 앞쪽 왼쪽 열두번째)이 신규공무원들에게 임용 전 교육을 진행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판 삼아 AI 육성·기업 지원 박차

산·학·연·관 협력 이끌어 기업체 AI 기술지원과 공모 활성화 추진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발판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기업 지원과 기술 공모 활성화를 추진하며 지역 혁신성장과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안산시는 지난 24일 한양대학교 ERICA 프라임 컨퍼런스홀에서 ‘AI기술지원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기형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 이성균 안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황상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이준기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장, 변화순 스마트허브여성경영자협의회 회장, 이주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부원장, 이미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데 안산시 AI 산업 발전 등에 있어 상호 간의 협력을 다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디지털 전환과 AI 산업 육성 전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산시 ▲한양대학교 ▲안산상공회의소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스마트허브여성경영자협의회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AI 공동정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한양대 ERICA와 AI허브센터 설립 미팅을 시작으로 AI 협의회 구성에 착수했고, AI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관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협력을 이끌어 왔다.

특히 관내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AI 관련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 협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제1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



이민근 안산시장(가운데)이 AI기술지원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회를 열고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AI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본격화 하겠다”며 “특히 AI 관련 공모사업 공동 대응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에 걸맞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AI 기반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반기 중 ‘안산시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인공지능(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기본 조례를 제정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환경재단, 2025 안산 그린리더스클럽 아카데미 개강

배움과 실천으로 지역 리더 들의 녹색 리더십 역량 강화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은 24일 경기테크노파크 3층 세미나실에서 ‘2025 안산그린리더스클럽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내 리더들이 사회공헌 실천활동의 의미를 배우고,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녹색활동을 지향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총 12회차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리더십 ▲기후변화와 ESG경영 ▲기업경영을 위한 법규(중대재해처벌법 등) ▲도시재생 및 자원순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빅데이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산시 기업 CEO, 오피니언 리더 등 다양한 지역 인사들이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안산그린리더스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홍희곤 재단 대표이사는 “안산그

린리더스클럽은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을 이끌어가는 그린리더들의 의미있는 네트워크”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원역할을 강화해,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류경원 안산그린리더스클럽 회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회원들이 각자의 사업장에서 환경 보존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그린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이번 교육을 세심하게 준비해준 안산환경재단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교육과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환경재단은 앞으로도 이번 아카데미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내 환경보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섬마을선생님」 노래 배경지 [마지막회]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대부도를 트로트의 메카로 (하)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2008년 대남초등학교 옥상 전망대에서 바라 본 염전과 고랫부리 람사르습지

이전호 계속 문화예술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대중가수 최초의 금관문화훈장 수훈자 이미지 가수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수들에게는 전설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인 대남초등학교는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람사르습지에 근접해 있어 해양·생태·환경과 예술·예능을 융합한 콘텐츠를 개발하면 요즈음의 트로트 열풍에 부응하여 ‘대부도가 환경체험과 트로트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2024년 현재 2,604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대부도인데 연 1,000만이상이 이곳을 찾는다. 그런데 안산이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 도시라 하는데 ‘대부도에 특별히 내세울 수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反問)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에 대부도 해솔길보다 자연환경과 시설이 우수한 트레킹 코스가 너무 많다. 박물관은 목포나 부여 등 지방에 비교가 되지 않고,

동주염전은 신안염전 보다 작다. 그 외 해변이나 해수욕장은 해운대나 대천, 채석강 등의 유명한 곳이 비하면 보잘 것 없다. 그래서 경기도 유일의 대부도 람사르습지와 ‘섬마을선생님’ 노래 배경지를 활용한 ‘갯벌생태환경과 트로트’를 융합한 생태·문화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섬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섬마을선생님’ 노래 배경지인 대남초등학교가 2025년 2월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태교육과 트로트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수도권 최고의 명소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기덕 감독의 ‘섬마을선생’ 영화 촬영지인 웅진군에서는 1998년 폐교된 ‘소아분교의 소아랑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에 총 55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데 국비 20억원, 인천광역시 10억원, 웅진군비 25억 5천만원을 부담한다. 그리고 1992년 폐교된 ‘대야작도 계남분교 관광명소화사업’에 총



2008년 06월 13일 대남초등학교 전망대에서 바닷새와 게를 관찰하는 모습

34억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한다. 이 두 폐교는 부지가 개인에게 매각되어 문화재생과 관광명소화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교훈을 안산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3년 반 후에 폐교될 대남초등학교 부지는 임야 5,838㎡, 교사(校舍)와 사택(舍宅), 화단과 운동장 11,312㎡ 등 총 17,150㎡(5,188평)이다. 2001년 산림청에서 학교 소나무숲과 테니스장 6,570㎡를 개인에게 불하하여 교육환경을 훼손하였다. 그래서 2008년 당시 학교장이 안산시와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하여 나머지 토지를 2009년 6월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산림청에서 개인에게 불하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25년 현재 대부도 고랫부리람사르습지에 주차장, 전시관, 체험 시설이 전무(全無)한 실정이라 ‘경기도 유일의 람사르습지’라고 자랑하기 부끄러운 실정이다. 그리고 대남초등학교는 야생화와 소나무 숲 등의 조경이

너무나 우수하고, 교사와 화장실, 넓은 주차장과 옥상 전망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도서관과 생태 환경 교육 시설, 사택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경기도 유일의 람사르습지사업비는 안산시 해양수산과와 안산환경재단이 중심이 되어 해양수산부, 경기도, 안산시에 요청하고,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기념과 마련은 안산시 문화예술과와 안산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부, 경기도, 안산시 등에 예산지원요청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섬마을 선생님’ 노래는 철새, 해당화, 염전, 섬색시, 종각 선생님 등 생태, 전통가요, 섬 문화이라는 문화·예능·창작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람사르해양생태 환경관과 트로트체험관’을 건립하여 생태 환경과 전통문화계승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폐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으로 수도권 최고의 생태·문화·관광 시설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데스크 칼럼

대부도, 국제학교 품은 교육도시로 거듭날까



김태창
편집국장

공유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내 아이가 경기안산1교에 직접 입학하지 못하더라도 그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 관계자들의 유입은 곧 지역 인구 증가와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대부도는 ‘바다와 관광’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앞으로는 ‘교육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오는 2028년 안산 대부도에 (가칭)경기안산1교가 문을 연다. 교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립형 국제학교 수준으로 운영될 이 학교의 개교 소식은 대부도 주민들뿐 아니라 안산, 더 나아가 수도권 교육계 전체에 신선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공립형 국제학교’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국제학교라고 하면 대개 사립학교 형태였다. 학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해 사실상 일부 계층의 전유물처럼 운영돼 왔다. 그러나 대부도에 들어설 경기안산1교는 학비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안산은 물론 경기도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학교급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를 단순한 신설학교가 아니라 대부도 교육 생태계 전체를 혁신하는 플랫폼으로 구상하고 있다. 중·고 18학급, 360명을 모집하는 규모지만 파급력은 그 이상이다. 다문화학생 70%, 내국인 학생 30%를 모집하지만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이 50대50일 가능성도 있다.

이미 대부초·대남초·대동초, 대부중 등 지역 학교들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일정 부분 지역 학생들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연계 수업을 통해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을

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교명 선정 과정에 대부도 주민을 포함시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한 전학생 유입으로 인한 기존 학교들의 학급 조정, 통학 환경 개선, 교원 충원 등 세부적 과제는 하나하나 풀어야 할 숙제다. 지역 학생들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느냐도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공교육 안에서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실험이 대부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수도권 외곽의 섬 지역이 혁신교육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성패는 정책 당국과 지역 사회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 교육 관계자의 말처럼, “대부도에 국제학교급 공립학교가 들어서면 것은 큰 기회”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물론이고,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2028년, 대부도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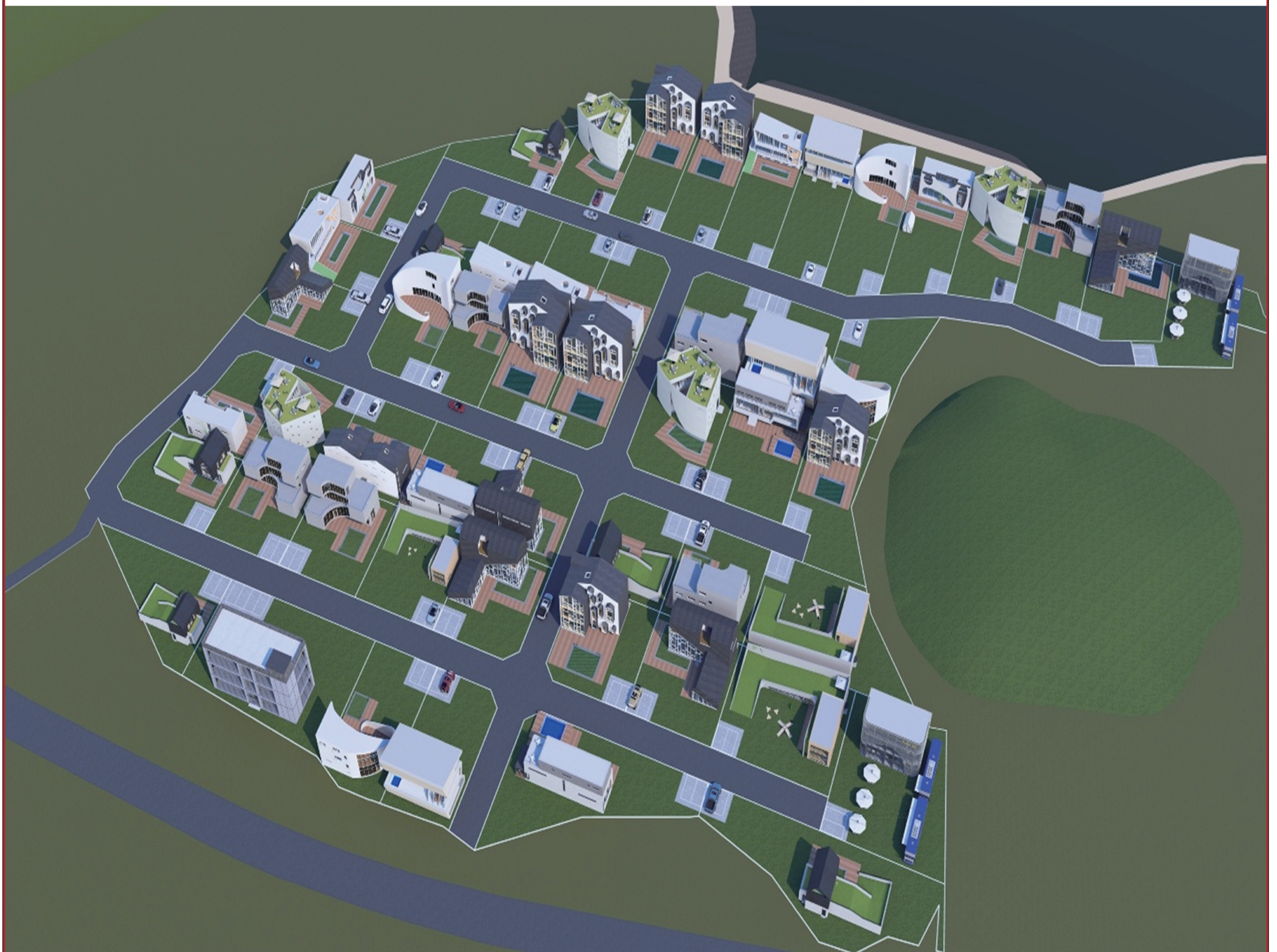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